

# 아동의 정서추론 발달

김민화      최경숙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 정보에 기초해서 정서를 추론하는 과정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즉, 한 상황에 대한 타인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고 이를 정서예측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아동의 능력과 추론과제로서 제시된 이야기의 개인적 정보 형태, 사건 유형의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추론의 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야기의 정보형태들과 사건유형들 간의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많아 질수록 개인적 정서 추론 능력이 증가했으며, 개인적 정보의 유형 중 타인의 인지적 평가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이전의 정서적 반응'이 그리고 사건 유형 중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의 조건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을 더 용이하게 했다.

정서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다루어온 연구에서 주로 관심이 되어왔던대상은 정서에 대한 상황적 결정 요인(situational determinant)이었으나, 최근에 와서 개인적 결정 요인(personal determinant)에 대하여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김희태, 1989 ; Gnepp, 1983 ; 1989b ; Gnepp & Chilamkurti, 1988 ; Gnepp & Gould, 1985 ; Gnepp, Klayman & Trabasso, 1982 ; Gove & Keating, 1979 ; Smither, 1977).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있어, 아동은 많은 경우에 보편적인 지식 즉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고려하게 된다. 여러 연구에서 4세정도의 어린 유아들도 상황이 간단하고 친숙한 것이면서 동시에 정서 또한 익숙한 것일 때는 그 상황과 연합된 정서를 성공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을 보였다(Bardon, Zelko, Duncan & Masters, 1980 ; Borke, 1971 ; 1973 ;

Chandler & Greenspan, 1972 ; Gnepp, 1983 ; Gnepp, Klayman & Trabasso, 1982 ; Harris & Olthof, 1982 ; Reichenbach & Masters, 1983).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대한 조망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망의 개인차를 유도하는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상황에 대한 고유한 조망을 하게 하는 '개인적 정보(personal information)' (Gnepp & Johnson, 1989 /재인용 ; Gnepp, Klayman & Trabasso, 1982 ; Gould, 1984 /재인용 ; Trabasso, 1982)를 참조하여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적절히 이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정서반응 추론에서 반응을 나타낸 사람의 개인적 정보를 고려하는 추론을 개인화된 추론(personalized inference)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추론은 일반적으로 조망수용(role taking) 능력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인식 두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황적 정보에 의존한 추론보다 더 성숙한 것으로 고려된다 (Chandler, 1977 ; Gnepp, 1989b ; Gnepp & Chilamkurti, 1988 ; Gnepp, Klayman & Trabasso, 1982 ; Gnepp & Gould, 1985 ; Iannotti, 1975).

이러한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성 요소(component)가 포함 되는데 (Gnepp, 1989b ; Gnepp & Chilamkurti, 1988 ; Gnepp & Gould, 1985), 첫째, 목표 인물(target person)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한 사건에 대한 그 개인의 인지적 평가(mental appraisal)를 추론하는 것과 둘째, 목표 인물의 추론된 인지적 평가를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개인적 정보를 고려한 개인화된 추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인지적 평가 (appraisal)를 추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론된 타인의 인지적 평가를 후속 상황에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희태(1989), Gnepp(1989b), Gnepp과 Gould(1985) 등은 개인 특유의 과거(person-specific past history)정보와 주인공의 정서를 예측해야하는 상황을 주어 이 과거정보로부터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고 이후 상황에 적용하도록 하는 과제를 사용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나이든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보다 타인의 정서예측에 개인특유의 과거정보로부터 얻은 인지적평가를 고려하기 쉬웠다. 또한 아동들은 주인공의 비전형적인 정서(atypical emotion)가 이야기 되었고 단지 그것의 설명만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더 개인화된 추론을 수행하기 쉬웠다. 즉 개인적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연령에서도 나타났지만 이것을 특정한 상황에서의 정서 반응 예측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은 훨씬 후에 나타났다. 이는 주인공에 대한 개인적 정보가 그 사람의 비전형적 정서반응을

제시할 때를 아동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들은 비전형적 정서반응이 이야기 되었을 때 조차 타인의 조망을 추론하기 위해 개인적 정보와 상황적 정보를 통합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였다(Gnepp, 1989a). 따라서 개인화된 추론에서 인지적 평가의 추론과 그것을 정서추론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른 발달과정이 구분될 수 있었다.

개인화된 추론을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정보는 범주화된 특징으로서 (1) 성, 연령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2) 특정 사회집단의 성원과 같은 "규범적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징으로서 (3) 능력, 성격-특성, 이상과 같은 "기질적 특성", (4) 개인의 이전 경험, 이전 행동, 이전의 정서적 반응과 같은 "개인 특이성(person-specific)" 등으로 점점 세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Gnepp, 1989a ; 1989b).

먼저, Rothenberg(1970)와 Deutsch(1974)는 연령과 성과 같은 광범위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연구 했는데, 이 두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투사시키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인의 상황과 성인 주인공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동이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성인의 세계와 유사해지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예측이 자신의 경험을 투사시킨 것인지 주인공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아동의 정서추론 발달을 연구 할 때는 문제시 되었다(Gnepp, 1989a).

두번째로, Gnepp, Klayman, 과 Trabasso (1982)는 특정 사회집단 성원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정서 이해에 취하게 되는 능력을 연구했는데, 부가적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는 4, 5세아들도 정서 추론에 규범적 정보(normative information)를 사용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상충되는 규범적 정보(contradictory normative information)가 주어질 때는 취학전

아동들조차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번째로, 성격 특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nepp과 Chilamkurti(1988)는 6, 8, 10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6개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성격 특성이 있는 조건과 단지 사건만이 제시된 조건사이의 정서반응 예측 능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나이는 아동과 성인이 어린 아동들보다 성격 특성적 지식에 더 영향을 받았음을 보였다.

네번째로, 개인 특이성 정보(person-specific information)는 개인차(differentiating)를 가장 잘 설명하고 특정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았다(Gnepp, 1989a).

개인 특이성 정보를 다룬 Deutsch(1974)의 연구는 비교적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time-limited) 개인 특이성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Gnepp, Klayman과 Trabasso(1982)의 연구는 주인공의 행동적 성향(behavioral disposition)을 기술한 개인 특이성 정보를 제공해 지속적이고 더 일반적인 정서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개인화된 추론의 첫번째 구성요소인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에 대한 정보가 추론하기 쉽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들도 정서 추론에 개인 특이성 정보를 고려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개인 특이성 정보의 제시방법 즉,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제시하는가가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이 야기될 수 있다. Gnepp(1989b)은 정보의 제시방법에 차이를 줄 수 있는 정보의 형태를 주인공의 '이전 경험', '이전 행동'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이전 경험'과 '이전 행동'은 한 사람의 조망을 고려하는 것을 요구하는 유사한 추론과정을 가지지만, '이전 경험'은 조망에서의 변화가능성을 제시하는 반면 '이전 행동'은 더 직접적으로 현재의 평

가를 제시해 상황에 대한 개인의 더 명확한 관점을 반영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개인의 행동보다 경험으로부터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는데 더 어려움을 보였지만 타인의 정서반응 예측에서는 이전행동과 이전 경험 정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은 또한 추론을 위해 제공된 이야기의 사건에 표현되어 있는 정서의 기능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이야기의 사건 유형을 사건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긍정적 이지만 주인공의 개인적 정보는 부정적 경험을 했던 것으로 조작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사건에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으로 조작한 경우보다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을 더 용이하게 했다(김희태, 1989 ; Gnepp, 1989b ; Gnepp & Gould, 1985).

위에 제시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몇가지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개인화된 추론의 발달과정을 밝히는데 있어 Gnepp(1989b), Gnepp과 Gould(1985)등의 연구는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를 예측하도록 하는 집단과 정서반응을 예측하도록 하는 집단을 분리하여(between group subject) 그 두 집단 간의 수행차이로 추론의 발달과정의 과도기적 형태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 아동(within subject)의 정서추론 발달 과정에서 타인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면서도 정서예측에 이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과도기적 반응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타인의 정서적 반응 예측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개인화된 추론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유형의 조건은 '사건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적 정보에서는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와 '사건 자체의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개인적 정보는 사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때, 부정적 사건의 경우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본다면 '개인적 정보에서 주인공이 한 대상에 긍정적 평가를 했음을 제시하는 때(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나운 개를 만났지만, 그 전날 그 개와 친해진 경험이 있을 때)'와 '개인적 정보가 주인공이 한 대상에 부정적 평가를 했음을 제시하는 경우로 개인적 정보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로는 부정적 정서가 추론될 때(예, 도시락 가방에서 반찬국물이 새었던 경험이 있는데, 엄마가 실수로 그 도시락을 깨뜨렸을 때)'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Gnepp(1989b)은 개인적 정보에서 주인공의 부정적 평가를 제시했던 대상에 부정적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이야기 자료에 포함시키는 하였지만 다른 경우와 독립적으로 비교하지 않았다. 김희태(1989), Gnepp과 Gould(1985) 또한 부정적 사건의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는 하였으나, 개인적 정보가 부정적 평가를 내포하고 후속 사건의 일반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사건 유형에서의 이야기 내용은 개인화된 추론과 상황적 추론의 결과로 얻은 정서를 확연히 구별시키지 못하였다(예, 전날 놀이터에서 모자를 잃어버려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가 다음날 또 장갑을 잃어버린다).

세재, 김희태(1989), Gnepp(1989b), Gnepp과 Gould(1985)연구는 이야기의 개인적 정보 조건에 따라 피험자의 각 집단을 설정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른 차이를 집단간 수행의 차이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집단간 설계(between group design)는 한 피험자가 하나의 조건에서 이야기 전체에 반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발견한 개인화된 추론의 차이는 개인차 변인이 혼합(comfound)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인화된 추론의 두가지 과정 즉 타인

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고 적용시키는 과정이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피험자간 비교를 통해 알아 보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개인 특이성 정보인 '이전의 정서적 반응'을 첨가하여 개인적 정보의 명확성의 차이가 정서반응 예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고자 했으며, 추론을 위해 제시되는 이야기의 사건 유형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타인의 정서반응 추론에서 연령에 따라 반응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1-a. 타인의 인지적 평가 추론과 정서적 반응 예측에서 개인화된 추론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며, 상황에 의존한 추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1-b. 타인의 정서반응 예측에 추론된 타인의 인지적 평가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과도기적 반응 형태가 발견될 것이며, 이것은 본 실험의 중간 연령 집단에 해당하는 국민학교 2학년 연령의 아동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개인특유의 과거 정보로서 제공되는 '이전의 정서적 반응', '이전 행동', '이전 경험' 조건에 따라 아동의 정서추론 반응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이전의 정서적 반응', '이전행동', '이전 경험' 순으로 타인의 정서에 대한 개인화된 추론에 용이함을 줄 것이다.

가설 3. 이야기에서 제시되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추론 반응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3-a. 추론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긍정적이나 개인적 정보에서 부정

적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부정적 개인 정보/긍정적 사건)가 일반적 평가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개인적 정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보다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 쉬운 것이다.

- 3-b. 부정적 사건에 대해 개인적 정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사건 유형에서 개인적 정보에서 주인공이 긍정적 경험을 했을 때(긍정적 개인 정보/부정적 사건)가 주인공이 부정적 경험을 했을 때(부정적 개인 정보/부정적 사건)보다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가 쉬운 것이다.

## 방 법

### 실험설계

본 연구는 4(연령)×3(개인적 정보형태)×3(사건 유형)에 따른 세가지 반응범주의 빈도를 종속 측정치로 얻는 반복 측정 설계를 사용하였고, 개인적 정보형태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할 때는 피험자 순서에 따라 이야기에서 받는 개인적 정보 형태가 달라지는 Latin-square 설계를 사용하였다.

### 연구대상

1991년 9월을 기준으로 만 4세, 6세, 국민학교 2학년(만 8세), 5학년(만 11세) 각각 24명씩(남녀비율 동수) 총 96명을 중류계층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부천시의 N 유치원, 서울시 강서구의 S 국민학교에서 표집하였다.

###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와 그림자료가 측정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이야기자료는 Gnepp(1989b), Gnepp과 Gould(1985)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중 6개를 선택한 것으로 예비실험을 거쳐 이야기에

서 사용되는 사건유형과 주인공의 과거 정보 조건을 본 실험에서 쓰일 수 있도록 각색하였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은 표 1과 같다.

그림자료는 15×21cm 크기의 하얀 마분지 위에 검은 선화이며, 한 이야기 당 5장의 그림이 있는 총 30장의 그림이다. 각 그림은 얼굴표정의 단서를 없애기 위하여 등장인물의 얼굴표정을 그리지 않았으며, 그림자료가 피험자에게 제시될 때는 피험자가 받는 과거 정보 조건에 따라 한 이야기 당 3장의 그림이 제시되었다.

## 실험절차

### 예비실험

본 실험에 앞서 실험도구로서 사용되는 이야기와 그림자료, 그리고 실험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이야기에서 사용된 경험, 행동, 정서적 반응 등의 개인적 정보와 두번째 사건의 정서적 함축성이 실험자의 의도대로 조작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대상 중 가장 어린 연령인 만 4세와 5세 4명씩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 결과 이전의 정서적 반응은 95.7%, 이전 행동은 75%, 이전 경험에서는 100%, 두번째 사건은 93.7%로 실험자 의도와 일치도를 보였다. 75%로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인 이전행동조건에서 실험자의 의도와 틀린 판단을 가장 많이 얻은 이야기는 주인공의 행동 설명을 첨가하여 주인공의 관점과 의도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켰다.

두번째로, 보조 자료로 사용한 그림 자료는 만 4세 4명, 6세 5명, 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각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림의 장면이 이야기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여기서 두명 이상이 이

표 1. 이야기의 구성

첫째사건	과거 정보 조건			둘째사건	사건유형
	정서	행동	경험		
철수는 가족들과 소풍을 갔다.	기분이 나빴다.	집에 가자고 졸랐다.	발을 다쳤다.	엄마가 또 소풍을 가자고 했다.	부정적 개인정보 / 긍정적 사건
엄마가 영수에게 자전거를 시주했다.	기분이 나빴다.	자전거 타기를 거부했다.	전봇대에 부딪혔다.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놀러 가자고 했다.	부정적 개인정보 / 긍정적 사건
엄마가 순희에게 스웨터를 주었다.	기분이 나빴다.	다른 옷으로 갈아 입었다.	친구들이 놀렸다.	엄마가 빨래하다 실수로 스웨터를 찢었다.	부정적 개인정보 / 부정적 사건
엄마가 영희에게 검정색 도시락 가방을 주었다.	기분이 나빴다.	다른 가방에 넣어 달라고 했다	검정가방에서 반찬 국물이 샀다.	엄마가 실수로 검정가방을 깨뜨렸다.	부정적 개인정보 / 부정적 사건
철수가 축구할 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기분이 좋았다.	집에 들어오라는 것을 거부했다.	비는 시원하고 귀여웠다.	다음날도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왔다.	긍정적 개인정보 / 부정적 사건
연수는 골목길에서 크고 무섭게 생긴 개를 만났다.	기분이 좋았다.	개를 쓰다듬어 주었다.	개가 꼬리를 치며 다가왔다.	다음날도 학교 갔다오는 도중 그 개를 만났다.	긍정적 개인정보 / 부정적 사건

야기와 다르게 해석한 장면은 등장인물의 포즈나 배경을 고쳐 그렸다.

세번째로, 예비실험을 거쳐 만들어진 도구를 가지고 실시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만 4세와 6세, 국민학교 2학년 과 5학년 각각 12명씩을 대상으로 1991년 8월 중 정서추론에 대한 예비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의 결과 질문의 방법과 채점기준상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먼저 아동에게 추론의 이유를 물어볼 때 단순히 “왜 그럴까”라고 묻는 것 보다는 “왜 OO(주인공)이 XX(정서반응 혹은 인지적 평가)하다고 생각하니?”라고 묻는 것이 질문

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개인화된 추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채점기준을 근거로 개인적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설명을 한 경우까지 개인화된 추론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본 실험**

본 실험은 1991년 9월 중 본 실험자 및 아동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3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실험자들은 2회의 사전 훈련을 받았으며, 실험은

피험자들에게 실험자가 무선 배정되어 유치원의 조용한 방과 국민학교의 도서관에서 개별검사로 실시되었다.

각 이야기의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하고,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순서대로 피험자 쪽으로 정면이 되도록 펼쳐준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때, 각 이야기의 개인적 과거 정보는 정해진 순서대로 제시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는 그림을 계속 펼쳐놓은 채로 이야기에 대한 기억 질문(memory question)을 한다. 피험자가 기억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기억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상기시켜 준다. 기억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면 “(주인공)은 (둘째 사건)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 “왜 (주인공)이 OO(아동이 대답한 반응)하다고 생각하지?”를 물어보고 아동의 정서 추론 반응을 기록한 다음 “그러면 (주인공)은 (주인공의 개인적 사건을 조성한 대상; eg. 까만 도시락 가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왜 (주인공)이 OO(아동이 대답한 반응)하다고 생각하지?”라고 묻고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에 대한 추론 반응을 기록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아동이 반응한 내용으로 개인

화된 추론 혹은 상황적 추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반응 범주 및 채점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으로 보고받은 정서추론 과 인지적 평가추론 각각에서의 아동의 반응 내용을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a. 개인화된 추론(personalized inference)반응 — 이야기 주인공의 개인적 정보(personal information)에 의해 제시되는 주인공 특유의 조망(character's specific perspective)으로부터 두번째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 혹은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고 설명하는 반응.
- b. 상황적 추론(situational inference)반응 — 단지 아동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 주인공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둘째사건의 일반적인 평가에만 근거해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고 설명하는 반응.
- c. 다른 추론(other inference)반응 — 개인화된 추론이나 상황적 추론의 범주에 넣을수 없는 반응으로 이야기에서 제공한 개인적 과거 정보와는 전혀 관련없는 이유를 들어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이나 인지적 평가를 추론

**표 2. 개인의 과거 정보 제시 순서**

피험자 순서	이 야 기					
	1	2	3	4	5	6
1	경험	행동	정서	경험	행동	정서
2	행동	정서	경험	행동	정서	경험
3	정서	경험	행동	정서	경험	행동
.	.	.	.	.	.	.
.	.	.	.	.	.	.
10	경험	행동	정서	경험	행동	정서
11	행동	정서	경험	행동	정서	경험
12	정서	경험	행동	정서	경험	행동

하는 반응.

이때, 아동이 개인화된 추론반응과 상황적 추론반응 둘다를 이야기 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화된 추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 포함시켰다.

정서 추론과 인지적 평가 추론의 반응 내용을 위와 같은 추론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의 추론 반응 형태를 다음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반응들은 결과 분석시 제외시켰다.

- 범주 1. 정서 추론과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 모두에서 개인화된 추론을 한 경우.
- 범주 2. 정서 추론과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 모두에서 상황적 추론을 한 경우.
- 범주 3. 정서 추론에서는 상황적 추론 반응을 했으나 인지적 평가 추론에서는 개인화된 추론 반응을 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들의 전체 576개 반응중 72.2%인 456개 반응을 가지고 연령, 사건 유형, 개인의 과거 정보의 형태에 따라 위의 세가지 반응범주별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통해 추론의 과정과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채점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Cramer의 C 계수(임인재,

1988)를 사용하여 채점자 2인간의 동의율을 구하였을 때 C=.86의 채점자간 일치도를 보였다.

**결과**

본 연구는 타인의 정서반응에 대한 추론형태가 연령, 개인적 과거정보의 형태, 개인적 과거 정보의 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4)×과거 정보 형태(3)×이야기 사건의 유형(3) 등의 독립변인과 반응범주(3)의 종속 변인을 가지고 6개의 이야기에 대한 아동들의 전체 576개 반응중 본 연구에서 상정했던 반응 범주에 속하는 456개 반응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선형 로그 분석(log-linear analysis)을 하고 부분적으로 2 분석을 하였다. 전체 선형로그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대상 아동들의 전체 반응빈도 요약표는 표 4와 같다.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의 주효과( $x^2(6)=53.26, p<.0001$ )와 이야기 사건 유형의 주효과( $x^2(4)=22.57, p<.001$ ), 그리고 연령과 이야기 사건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x^2(12)=23.18, p<.05$ )가 있었다. 즉, 연령과 이야기 사건 유형에 따라 피험자들의 반응형태가 달라지며, 연령과 이야기 사건 유형이 함께 피험자들의 반응 형

**표 3. 연령과 과거 정보 형태, 이야기 사건 유형에 따른 반응 범주별 빈도에 대한 선형로그 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x^2$
연령	6	53.26***
과거 정보 형태	4	3.56
이야기 사건 유형	4	22.57**
연령×과거 정보 형태	12	10.40
연령×이야기 사건 유형	12	23.18*
과거 정보 형태×이야기 사건 유형	8	7.06
연령×과거 정보 형태×이야기 사건 유형	24	10.49

\*\*\*  $p<.0001$ , \*\*  $p<.001$ , \*  $p<.05$



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보다 구체 선형 로그 분석 결과로 가설 1과 가설 3을 긍정할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전체 반응빈도 요약표

연령	사건유형	과거정보	추론 반응 범주			계	
			개인화	상황	과도기 다른추론		
만4세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5	5	2	4	16
		행동	4	4	3	5	16
		정서	4	6	1	5	16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0	11	2	5	16
		행동	2	10	1	3	16
		정서	0	8	1	7	16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3	7	2	4	16
		행동	4	5	1	6	16
		정서	5	4	1	6	16
만6세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3	10	0	3	16
		행동	6	6	0	4	16
		정서	3	3	1	9	16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0	14	0	2	16
		행동	1	10	2	3	16
		정서	0	6	4	6	16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6	6	1	3	16
		행동	5	7	2	2	16
		정서	7	4	2	3	16
2학년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8	3	0	5	16
		행동	10	3	0	3	16
		정서	11	3	1	1	16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4	9	1	2	16
		행동	2	6	5	3	16
		정서	5	2	6	3	16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7	4	3	2	16
		행동	7	6	2	1	16
		정서	6	3	2	5	16
5학년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11	1	0	4	16
		행동	12	2	0	2	16
		정서	13	2	0	1	16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9	5	1	1	16
		행동	9	4	2	1	16
		정서	14	0	0	2	16
	개인정보(+) 사건유형(-)	경험	10	2	3	1	16
		행동	5	7	2	2	16
		정서	8	4	1	3	16
			계	456	총계	576	

표 5. 연령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

반응범주	만 4세	만 6세	2학년	5학년	계
1. 개인화된 추론	27(26.73)	31(28.44)	60(50.42)	91(71.65)	209
2. 상황적 추론	60(59.41)	66(60.55)	39(32.77)	27(21.26)	192
3. 과도기적 추론	14(13.86)	12(11.01)	20(16.81)	9( 7.09)	55
계	101	109	119	127	456

( )안은 %임

연령에 따른 아동의 정서추론 형태

연령에 따라서 아동의 정서 추론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반응 범주별 빈도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5에서와 같이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반응 모두에서의 개인화된 추론반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함께 증가함을 보인 반면, 상황적 추론 반응의 빈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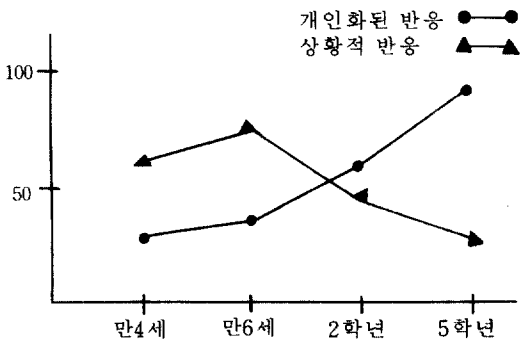


그림 1. 연령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반응과 상황적 추론 반응의 빈도변화

여기서 만 4세와 6세는 개인화된 추론 반응보다 상황적 추론 반응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만 4세,  $\chi^2(1)=14.18, p<.01$ ; 만 6세,  $\chi^2(1)=11.92, p<.01$ ), 국민학교 2학년과 5학년은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유의하게 많았다(국민학교 2학년,  $\chi^2(1)=4.04, p<.05$ ; 국민학교 5학년,  $\chi^2(1)=33.$

64,  $p<.01$ ). 이것은 타인의 인지적 평가추론과 정서적 반응예측 모두에서 개인화된 추론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며, 상황에 의존한 추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a를 긍정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적 반응범주의 경우 2 분석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반응범주의 빈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과도기적 반응빈도수로부터 발달적 변화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국민학교 2학년 연령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고 5학년 연령에서는 크게 떨어지게 되는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b를 유의미하게 긍정하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아동의 정서추론 반응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타인의 정서반응추론에서 연령에 따라 반응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개인의 과거 정보 형태에 따른 아동의 정서추론 반응형태

연령, 과거 정보의 형태, 이야기 사건 유형을 함께 고려한 선형 로그 분석에서는 과거 정보 형태의 반응 범주별 빈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했지만, 과거 정보 형태와 반응 범주별 빈도만 따로 묶어 2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chi^2(4)=9.72, p<.05$ ). 과거 정보 형태에

표 6. 개인의 과거 정보 형태에 따른 반응 범주별 빈도

반응 범주	이전 경험	이전 행동	이전의 정서적 반응	계
1. 개인화된 추론	66(41.8)	67(42.7)	76(53.9)	209
2. 상황적 추론	77(48.7)	70(44.6)	45(31.9)	167
3. 과도기적 추론	15( 9.5)	20(12.7)	20(14.2)	55
계	158	157	141	456

( )안은 %임

다른 반응 범주별 빈도와 빈도 변화는 다음의 표 6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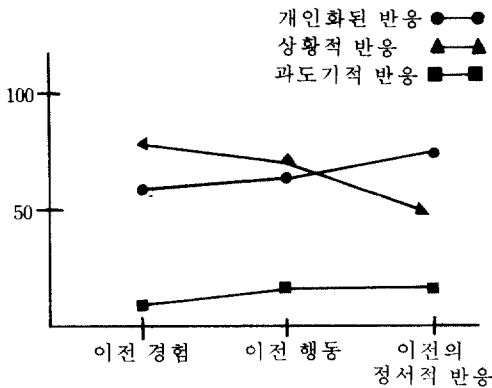


그림 2. 개인의 과거 정보 형태에 따른 반응 범주별 빈도 변화

위의 표 6과 그림 2에서 보듯이 개인화된 추론 반응범주의 빈도는 '이전의 정서적 반응', '이전 행동', '이전 경험' 순으로 많았고, 상황적 추론 반응범주의 경우는 그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도기적 추론 반응범주의 빈도는 '이전 경험' 조건 보다 '이전 행동'과 '이전의 정서적 반응' 조건에서 똑같은 빈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추론 반응범주의 빈도만으로 과거 정보 형태에 따른 빈도차를 2 분석한 결과에서 개인화된 추론 반응은 과거정보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없었으나 상황적 추론 반응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chi^2(2)=13.87$ ,

$p<.01$ ). 이제까지의 결과 분석에서 개인화된 추론반응과 상황적 추론반응의 빈도의 증감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이전의 정서적 반응', '이전 행동', '이전 경험'등의 조건 순으로 상황적 반응이 많아지는 것은 이러한 과거 정보 조건들이 아동의 정서추론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과거 정보로서 제공되는 '이전 경험', '이전 행동', '이전의 정서적 반응' 등의 조건에 따라 아동의 정서 추론 반응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며, '이전의 정서적 반응', '이전 행동', '이전 경험' 조건 순으로 타인의 정서 반응 예측에서 개인화된 추론에 용이함을 줄 것이라는 가설 2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사건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추론 형태  
이야기 사건 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추론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반응범주별 빈도가 표 7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이야기 사건유형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

반응범주	개인적 정보(-) / 사건(+)	개인적 정보(-) / 사건(-)	개인적 정보(+ ) / 사건(-)	계
1. 개인화된 추론	90(61.64)	46(29.49)	73(47.40)	209
2. 상황적 추론	48(32.88)	85(54.49)	59(38.31)	192
3. 과도기적 추론	8( 5.48)	25(16.03)	22(14.29)	55
계	146	156	154	456

( )안은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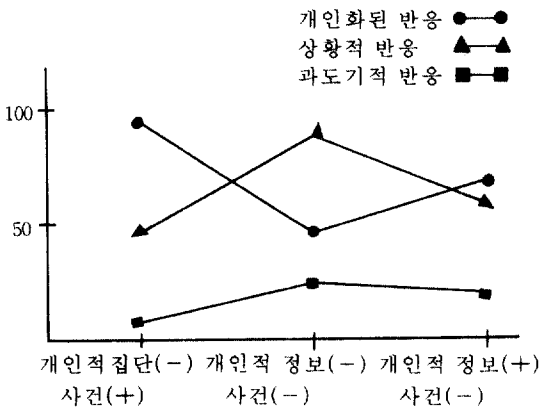


그림 3. 이야기 사건 유형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 변화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화된 추론반응의 빈도는 '부정적 개인 정보/긍정적 사건'의 이야기 사건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적 개인 정보/부정적 사건'의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chi^2(2)=14.13, p<.01$ ). 반면, 상황적 추론반응 범주의 빈도는 반대 순서로 나타났다( $\chi^2(2)=11.28, p<.05$ ).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면서도 이를 정서추론에 까지 적용시키지 못하는 과도기적 반응의 경우는 사건의 일반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부정적 개인 정보/부정적 사건'의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i^2(2)=8.98, p<.05$ ).

이러한 결과들을 가설 3-a와 가설 3-b를 검증하기 위해 이야기를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의 반응범주별 빈도와 부정적 사건에서 '개인적 정보가 주인공의 부정적 경험을 제시할 때'와 '긍정적 경험을 제시할 때'의 반응범주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 표 9와 같다.

표 8. 긍정적·부정적 사건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

반응 범주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평균빈도)	계
1. 개인화된 추론	90(61.64)	59.5(38.44)	149.5
2. 상황적 추론	48(32.88)	72( 46.4)	120
3. 과도기적 추론	8( 5.48)	23.5(15.16)	31.5
계	146	155	301

( )안은 %임

**표 9. 부정적 사건에서 개인적 정보유형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

반응 범주	개인적 정보 유형		계
	부정적 개인정보	긍정적 개인정보	
1. 개인화된 추론	46(29.49)	73(47.40)	119
2. 상황적 추론	85(54.49)	59(38.31)	144
3. 과도기적 추론	25(16.03)	22(14.29)	47
계	156	154	310

( )안은 %임

위 표 8에서는 긍정적 사건 유형(부정적 개인 정보/긍정적 사건)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 그리고 부정적 사건이 제시되어 있는 두가지 사건 유형(부정적 개인 정보/부정적 사건, 긍정적 개인 정보/부정적 사건)에 따른 반응범주별 평균 빈도를 제시하였다. 이 빈도차를 2 분석을 하였을 때, 부정적 사건 유형보다 긍정적 사건 유형에서 개인화된 추론의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x^2(1)=5.82, p<.05$ ), 부정적 사건유형에서 상황적 추론의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다( $x^2(1)=4.41, p<.05$ ). 또한, 과도기적 추론반응 역시 부정적 사건유형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x^2(1)=6.67, p<.01$ ).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긍정적 사건에 대해 개인적 정보가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부정적 사건에 대해 개인적 정보가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보다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 쉬울 것이라는 가설 3-a를 긍정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의 빈도를 2 분석한 결과 똑같이 부정적 사건이 제시되었지만, 개인적 정보에서 주인공의 긍정적 경험을 암시했던 경우가 긍정적 경험을 암시했던 경우보다 개인화된 추론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x^2(1)=5.68, p<.05$ ). 반대로 상황적 추론은 개인적 정보가 주인공의 부정적 경험을 암시했던 경우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x^2(1)$

$=4.34, p<.05$ ). 반대로 상황적 추론은 개인적 정보가 주인공의 부정적 경험을 암시했던 경우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x^2(1)=4.34, p<.05$ ). 그러나 과도기적 추론반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개인적 정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사건 유형중 개인적 정보에서 주인공이 긍정적 경험을 했을 때가 부정적 경험을 했을 때 보다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 쉬울 것이라는 가설 3-b를 긍정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 사건유형에 따른 정서추론 형태의 분석결과를 보면, 이야기에서 제시되는 사건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추론 반응의 양상이 달라졌으며, 사건의 유형이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 '부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일 때의 순으로 개인화된 추론에 용이함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연령과 이야기 사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연령과 이야기 사건유형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이야기 사건 유형에서 연령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각 연령내에서 이야기 사건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선형 로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빈도표와 선형 로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 표

**표 10. 각 연령 내에서 사건유형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

연령	반응 범주	개인정보(-) 사건(+)	개인정보(-) 사건(-)	개인정보(+) 사건(-)	계
만4세	1. 개인화된 추론	13(38.2)	2( 5.7)	12(37.5)	27
	2. 상황적 추론	15(44.1)	29(82.9)	16( 50)	60
	3. 과도기적 추론	6(17.6)	4(11.4)	4(12.5)	14
	계	34	35	32	101
만6세	1. 개인화된 추론	12(37.5)	1( 2.7)	18( 45)	31
	2. 상황적 추론	19(59.4)	30(81.1)	17(42.5)	66
	3. 과도기적 추론	6( 3.1)	6(16.2)	5(12.5)	12
	계	32	37	40	109
2학년	1. 개인화된 추론	29(74.4)	11(27.5)	20( 50)	60
	2. 상황적 추론	9(23.1)	17(42.5)	13(32.5)	39
	3. 과도기적 추론	1( 2.6)	12( 30)	7(17.5)	20
	계	39	40	40	119
5학년	1. 개인화된 추론	36(87.8)	32(72.7)	23(54.8)	91
	2. 상황적 추론	5(12.2)	9(20.5)	13( 31)	27
	3. 과도기적 추론	0( 0)	3( 6.8)	6(14.3)	9
	계	41	44	42	127
총계		146	156	154	456

**표 11. 각 연령별 이야기 사건 유형에 따른 반응범주에 대한 선형로그 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chi^2$
이야기 사건유형 at 만4세	4	11.21*
이야기 사건유형 at 만6세	4	12.35*
이야기 사건유형 at 2학년	4	15.75**
이야기 사건유형 at 5학년	4	9.55*

\*\*  $p < .005$ , \*  $p < .05$

11, 표 1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사건 유형에서 연령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차이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이야기 사건 유형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만4세,  $\chi^2(4) = 11.21$ ,  $p < .05$ ; 만6세,  $\chi^2(4) = 12.35$ ,  $p < .05$ ; 2학년,  $\chi^2(4) = 15.75$ ,  $p < .005$ ; 5학년,  $\chi^2(4) = 9.55$ ,  $p < .05$ )

**표 12. 각 이야기 사건 유형별 연령에 따른 반응범주에 대한 선형로그 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chi^2$
연령 at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	6	30.66****
연령 at 부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	6	49.15****
연령 at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	6	3.91

\*\*\*\* $p < .0001$

55,  $p < .05$ ), 그리고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 $\chi^2(6)=30.66, p < .0001$ )'과 '부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 $\chi^2(6)=49.15, p < .0001$ )'에서 연령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 4세와 국민학교 2학년에서는 개인화된 추론의 빈도가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 '부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사건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만 6세는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유형에서 가장 개인화된 추론의 빈도가 높았고, 국민학교 5학년은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유형이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긍정, 긍정/부정, 부정/부정의 사건유형 순으로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가 쉬웠지만, 모든 연령에서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각 연령에서 이야기 사건유형에 따른 반응범주의 빈도분포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유형을 제외하고, 각 이야기의 사건 유형에서 연령에 따른 반응범주별 빈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반응의 빈도는 증가하고 상황적 추론반응의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정서반응 예측에서 개인화된 추론이 증가한 반면 상황적 추론은 감소하였다. 만 4세와 6세는 상황적 추론반응이 주된 반응이었고, 국민학교 2학년과 5학년 연령부터 개인화된 추론이 상황적 추론 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타인의 인지적 평가는 개인화된 추론을 하면서도 정서반응 예측에 이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추론의 형태 역시 연령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추론의 형

태는 한 연령대에서 생성 혹은 소멸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다는 모든 연령에서 존재하였고, 다만 국민학교 2학년 연령에서 가장 큰 빈도를 나타내었다. Gnepp(1989b)의 연구에서도 11세 아동조차 추론된 인지적 평가를 적용시키는데 계속 문제를 보임을 지적 하였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기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인지적 평가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아동이 개인화된 추론을 할 수 있는 연령이 4세 까지 정도로 낮아짐을 고려할 때 (Deutsch, 1974 ; Gnepp, 1983 ; Gnepp, Klayman & Trabasso, 1982 ; Iamotti, 1978 ; Kurdek & Rodgon, 1975 ; Reichenbach 와 Masters, 1983), 아동들이 추론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도기적 형태를 보이는 것은 추론능력 자체를 소유하지 못했다가 보다는 추론된 인지적 평가를 자발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함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주 어린 아동들은 상황 의존적 추론을 하고, 이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황에 부가적인 정보들을 고려하게 되어 개인화된 추론에 까지 이를 수 있지만, 그 과도기에 부가적 정보 즉 개인적 정보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추론의 형태가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적 과거 정보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 추론 형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개인적 과거 정보 유형 중 '이전의 정서적 반응'에서 개인화된 추론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전행동'과 '이전경험' 순이었다. 반면 상황적 추론 반응은 '이전경험'이 가장 많았고 '이전의 정서적 반응' 조건에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주로 사용한 선형 로그 분석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과거 정보 유형과 반응범주별 빈도만을 따로 묶어 2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한 효과를 얻었다.

Gnepp(1989b)의 연구에서는 정서반응 예측에서 이전행동과 이전경험 정보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Gnepp은 이를 두 정보가 추론과정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 똑같은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에 대한 개인화된 추론 하나만을 볼 때는 이전경험과 이전행동 정보에서 확연한 차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상황적 추론을 한 반응의 빈도까지 함께 고려할 때는 이전행동 조건이 개인화된 추론에 더 용이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들(김희태, 1989; Gnepp & Chilarmkurti, 1988; Gnepp & Gould, 1985)과는 달리 정서적 반응을 과거 정보의 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다른 과거 정보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조건들보다 더 많은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빈도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정보의 형태가 그 사람의 인지적 평가를 분명하게 반영해 줄수록 혹은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기 쉬울수록 정서 반응 예측에 이를 고려하여 적용시키는데 더 용이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세째, 추론을 위해 제시된 이야기 사건 유형에 따른 아동의 추론 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게 평가되는 사건이지만 개인적 정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사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 사건이지만 개인적 정보가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사건유형에서 보다 더 개인화된 추론을 잘했다.

김희태(1989)는 이러한 결과의 이유를 아동들이 사건의 원인 보다는 결과에 의존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의 부정적 결과에 더 치중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Gnepp과 Gould(1985)는 긍정적인 정보 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가중치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Gnepp(1989b)은 이러한 결과가 정서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통제를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즉 한 사건에

대한 개인적 정보의 일반적인 일치도(consensus)가 낮을 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 볼 때 아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사건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는 부정적 사건 유형에서 개인적 정보가 주인공의 긍정적 경험을 반영하는 이야기 보다 주인공의 부정적 경험을 반영한 이야기에서 개인화된 추론이 더 어려움을 발견했다. 이는 개인적 정보가 주인공의 부정적 경험을 반영한 이야기에서는 아동이 주인공의 개인적 정보를 통해 그가 부정적 사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추론하기까지는 개인적 정보가 후속 사건에 주는 영향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의 단계가 더 요구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는 도덕적 책임성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이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했음에도 이를 정서반응 예측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추론의 과도기적 형태는 부정적 사건 유형인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 등의 사건유형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서추론이 요구되는 상황자체의 일반적인 일치도(consensus)에 더 의존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가 추론되었음에도 주인공이 사건자체에 대한 일반적 정서반응과는 다른반응을 할 것이라는 데까지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의존성은 부정적 사건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들이 점차 정서이해를 위해 외적상황 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까지도 변화시키는 전략적 자기통제를 하기 때문에(Harris, Olthof & Terwogt, 1981; Mc Coy & Masters, 1985; Saarni, 1989), 상황 자체의 일반적인 일치도에 부합하는 정서추론을 위해 추론



된 주인공의 인지적 평가까지도 변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본 연구의 결과 모든 연령에서 사건 유형에 따른 정서 추론 반응 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연령에서 보았을 때는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 '부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사건유형 순으로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가 쉬웠지만, 모든 연령에서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만 4세 연령과 국민학교 2학년 연령에서는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 '부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이야기 사건 유형 순으로 개인화된 추론이 많이 나타났지만, 만 6세 연령에서는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이야기 사건 유형이 가장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 쉬웠고, 국민학교 5학년에서는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이야기 사건유형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 개인정보/부정적 사건'의 이야기 사건유형을 제외하고 각 사건유형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결과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에 용이함을 줄 수 있는 정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에 대한 개인화된 추론의 과정에서 인지적 평가추론과 새로운 상황으로 추론된 평가를 적용시키는 두가지 구성요소를 규명했는데 이를 토대로 인지적 조망수용과 정서적 조망수용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조망을 추론하는 것이라고 볼 때,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것 즉 정서적 조망수용을 위해서는 인지적 조망수용이

선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Borke, 1972, 1973 ; Chandler & Greenspan, 1972 ; Gove & Keating, 1979 ; Harter & Buddin, 1983 ; Kurdek & Rodgon, 1975 ; Mossler, Marvin & Greenberg, 1976 ; Piaget, 1985 ; Selman, 1976 ; Turnure, 1975 ; Urberg & Docherty, 1976)은 인지적 조망수용과 정서적 조망수용과의 관련성을 밝혔으나 어느 것이 앞선다고 결론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상황과 고유하게 연합된 정서를 조망하는 것이 아닌 상황과 독립적인 개인 특유의 정서를 조망해야 하는 과제를 사용한 본 연구와 같은 연구들(Gnepp, 1989b ; Gnepp & Chilarmkurti, 1988 ; Gnepp & Gould, 1985)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정서적 이해는 인지적 이해가 선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사건 유형과 개인적 정보의 형태가 정서 추론에 미친 영향도 정서 추론을 위한 인지적 조망수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 평가가 선행되는 귀인 의존적인 정서반응(attribution-dependent emotional reaction)에 대한 아동의 이해는 발달의 후기에 이루어진다는 주장(Graham & Weiner, 1986 ; Weiner, 1985 ; Weiner & Graham, 1984)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조망수용이 선행되는 정서적 조망수용은 발달의 후기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아동의 정서반응 예측에서 개인화된 추론의 발달과 다른 발달 영역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Gnepp(1989b)은 작동기억(working memory)과 또래간 사회성 척도(peer sociometry)를 각각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으로 상정하고 개인화된 추론과의 상관을 보았는데, 개인화된 추론에 연합된 능력으로서 인지적인 면보다 사회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

## 참 고 문 헌

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관의 정도를 밝히는데 그친것으로, 좀더 체계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적 이해가 제시된 이야기의 사건 유형의 도덕적 평가나 일반적 일치도(consensus)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덕성이나 사회 의존도, 또는 귀인과 인지양식 등과 같은 영역과의 관계를 밝혀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로, 본 연구의 과정 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들의 정서 표현 용어가 세분화되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기분 나쁘다.”,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기분 좋다”로 일괄하였다. 이것을 정서표현의 미분화로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한 종류의 정서라도 그것의 원인과 표현 방법에 따라 그 정서의 명칭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볼 때, 올바른 정서 표현이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정서표현 용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이야기 자료에서 사건의 결과를 귀인시킬 수 있는 원인들이 좀더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면 귀인 차원에 따른 분화된 정서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이야기의 행위자 즉 주인공이 자기자신일 경우로 과제를 제시했다면 아동들의 정서용어가 좀더 분화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비롯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아동들의 언어적 보고(verbal report)로 개인화된 추론의 여부를 판단하고 분석했는데, 표현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의 경우 언어적 보고만으로는 정서에 대한 이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언어적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아동의 추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 방법상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김희태(1989). 아동의 타인 감정 추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 교육학과 석사 학위 논문.

Barden, R. C., Zelko, F. A., Duncan, S. W., & Masters, J. C.(1980). Children's consensual knowledge about the experiential determinant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968-976.

Borke, H.(1971). Internati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3-269.

Borke, H.(1973).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between three and six years of age : a cross-cultur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9, 102-108.

Brody, L. R., & Harrison, R. H.(1987).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bilities to match and label emotionally laden situations. *Motivation and Emotion*, 11, 347-365.

Chandler, M., & Boyes, M.(1982).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B. B. Wolm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Chandler, M., & Greenspan, S.(1972). Ersatz egocentrism : a reply to H. Borke. *Developmental Psychology*, 7, 104-106.

Deutsch, F.(1974). Female preschoolers' perception of affective response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videotaped epis-

- odes. *Developmental Psychology*, 10, 733-740.
- Gnepp, J.(1983).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 infe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g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05-814.
- Gnepp, J.(1989a). Children'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In C. Saarni, & P. Harris(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nepp, J.(1989b). Personalized inferences of emotions and appraisals : component processes and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5(20), 277-288.
- Gnepp, J., & Chilamkurti, C.(1988). Children's use of personality attributions to predict other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Child Development*, 59, 743-754.
- Gnepp, J., & Gould, M. E.(198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inferences : understanding other people's emotional reactions in light of their prior experiences. *Child Development*, 56, 1455-1464.
- Gnepp, J., & Johnson, L. K.(1989). *Children's ability to seek information to make emotional inferences*. Manuscript in preparation.
- Gnepp, J., Klayman, J., & Trabasso, T. (1982). A hierarchy of information sources for inferring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3, 111-123.
- Gnepp, J., McKee, E., & Domanic, J. A. (1987). Children's use of situational information : understanding emotionally equivocal situ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14-123.
- Gould, M. E.(1984). Children's recognition and resolution of ambiguity in making affective judgem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May.
- Gove, F. L., & Keating, D. P.(1979).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94-600.
- Greenspan, S., Barenboim, C., & Chandler, M. J.(1976). Empathy and pseudoempathy : the affective judgements of first-and third-grad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9, 77-88.
- Harris, P.(1983).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situation and emo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6, 490-509.
- Harris, P., & Olthof, T.(1982). The child's concept of emotion. In G. Butterworth, & P. Light (Eds.), *Social cognition : studies of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s, P., Olthof, T., & Terwogt, M. M. (1981). Children's knowledge of emo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247-261.
- Harris, P., Olthof, T., Terwogt, M. M., & Hardman, C. E.(1987). Children's knowledge of the situations that provoke e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0, 319-343.

- Harter, S., & Whitesell, N. R.(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emotional concepts.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annotti, R. J.(1975).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empathy in childr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24.
- Iannotti, R. J.(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s on role 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19-124.
- Kurdek, L. A., & Rodgon, M. M.(1975).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th-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48-650.
- McCoy, C. L., & Masters, J. C.(1985).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trategies for the social control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56, 1214-1222.
- Mossler, D. G., Marvin, R. S., & Greenberg, M. T.(1976). Conceptual perspective-taking in 2-to 6-year-ol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2, 85-86.
- Reichenbach, L., & Maters, J. C.(1983).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s in judgements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54, 993-1004.
- Rothenberg, B. B.(1970).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and the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competence, intrapersonal comfort, and intellectual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2, 335-350.
- Saarni, C.(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s. In C. Saarni, & P. Harris(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man, R. L.(1971). Taking another's perspective : role-taking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2, 1721-1734.
- Smither, S.(1977). A re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al study of empathy. *Human Development*, 20, 253-276.
- Strayer, J.(1986). Children's attributions regarding the situational determinants of emotion in self and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67, 649-654.
- Thompson, R. A.(1989). Causal attribution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In C. Saarni, & P. Harris(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ure, C.(1975). Cognitive development and role-taking ability in boys and girls from 7 to 12. *Developmental Psychology*, 11, 202-209.
- Weiner, B.(1982).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causal attributions. In M. S. Clark, & S. T. Fiske(Eds.), *Affect and cognition : the 17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Hillsdale, N. J. : Erlbaum.
- Weiner, B.(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 Weiner, B., & Graham, S.(1984). An attributional approach to emotional development. In C. Izard, J. Kagan, & R. Zaj-

- 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man, R. N., Lewis, W. C., & King, M. (1972). The development of the language of emotions : 1.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ntroduc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0*, 167-176.
- Urberg, K. A., & Docherty, E. M. (1976). Development of role-taking skill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98-203.
- Zahn-Waxler, C., Radke-Yarrow, M., & Brady-Smith, J. (1977). Perspective-tak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3*, 87-88.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Effect of Personalized Inference

MinHwa Kim and KyoungSook Choi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wo components of personalized inference, that is, process of inferring another person's mental appraisal about one situation and applying it to the other situation for making inference about emotional reaction. And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sonal information types and story conditions on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The subjects were 4-year-old(N=24), 6-year-old(N=24), second grade of primary school(N=24), and fifth grade of primary school(N=24) children. In each group, there were equal number of boys and girls. Subjects were told stories in which personal information and negative/positive types of events were varied, and they were asked to predict and explain hero(in)'s emotional reaction and appraisal of target event. This experiment consisted of 4(age) by 3(story conditions; negative personal information/positive event, negative personal information/negative event, and positive personal information/negative event.) by 3(personal information types; prior emotional reaction, prior behavior, and prior experience.) within subject design. The dependent measures were three response types; personalized inference, situational inference, and transitional inference. These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log-linear analysis and 2-test.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age-related differences in emotional inference types were significant, that is, personalized inferences increased with age while situational inferences decreased. Second, the differences in personal information type effects on personalized inferences were significant, that is, prior emotional reac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types was most influential in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Third, the differences in story condition effects on personalized inferences were significant, that is, 'negative personal information/positive event' condition was

